

# 말씀의 샘

## 복음적인 기도 <마태복음 6장 1~8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 시작은 복에 대한 개념부터 완전히 뒤집으면서 부터 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축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신다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일정일획도 다 이루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수긍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 저분도 율법을 옹호하시는 분이구나!’ ‘저분도 정통이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빛나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을 안하면 계명을 지킨줄로 아느냐? 마음으로 미워만해도 살인이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간음을 안했다고 계명을 지킨줄로 생각하느냐?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거다.”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주고,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옹호하시는 것 같더니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행위자원에서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게다가 산상수훈의 연장선인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언뜻 보면 축복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정죄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섯 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만 아니라 마음의 부분까지 완전하게 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인이라는데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해지면서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할테면 해봐라. 이래도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앙생활의 분야는 바로 “**구제와 선행**”입니다. 자칫 율법적인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신앙행목이 바로 구제와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해놓고 어깨에 힘들여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 하고,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의가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상을 못 받는다. 하나님만 겨냥해라**” 잘 해놓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좋은 일 해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자기 의로 한 것이며 상을 하나도 얻지 못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거면 절대 좋은 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일하고 상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5장이 기초가 된다면 좋은 일 하고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선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서 이런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적인 선행이 아닌 복음적인 선행을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신앙생활은 분야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생활을 실패하면 우린 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 못하면 영이 죽고 육이 지배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의 최고의 특권과 능력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 6: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평가를 받으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아무런 효력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안하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겨냥할 수 있는 골방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 6: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도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율법의 잔재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도 떤다면 주시고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5장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분명히 해야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존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무리 속에 우리 공로가 아닌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100% 응답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능력있는 복음적 기도인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도, 기도도 내 힘을 온전히 빼야합니다. 율법의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놀라운 평강이 밀려옴을 경험합니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 복음적인 열매와 응답들이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5. 10. 9 금요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5. 10. 2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로마서 12장 2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변화되어야 합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